

현장시선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제주들불축제가 대면 행사로 4년 만에 진행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오랫동안 진행되지 못한 탓에 축제를 기다리는 사람도 분명히 많을 것이라 짐작된다. 다만 축제가 다가올수록 들불축제를 바라보는 불편한 시각도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들불축제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들불축제의 목적이 변질됐다는 점이 불편하다. 제주시는 들불축제의 모티브를 새봄이 찾아올 무렵 소와 말의 방목지에 불을 놓아

제주들불축제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때

진드기 등 해충을 없애 가족에게 먹이기 좋은 풀을 얻고, 불에 탄 재는 비옥한 땅을 만드는 전통목축문화의 계승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물론 전통목축문화를 계승하고 일정 부분 초지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기획된 행사라면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축제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통문화를 알리겠다는 것이라면 들불축제의 개최를 이해하지 못할 바도 아니다. 하지만 들불축제에 그런 내용이 담겨있을까? 사실 그렇지 않다. 애초에 들불축제의 목적은 전통문화의 계승이 아니라 수복강녕과 풍요, 액운 타파 등을 기원하는 의미였다. 달집태우기와 같이 불을 질러 주변을 밝히는 전통놀이를 오름 전체로 옮겨 놓은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전통목축문화 계승을 위한 불

놓기라면 수백리터의 기름과 수천 발의 흑색 화약을 사용할 리도 없다. 질 좋은 풀을 얻으려면 토지의 오염이 예상되는 물질로 불을 내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앞서 언급한 수백리터의 기름과 수천발의 흑색 화약을 사용한다는 점이 불편하다. 들불축제를 하면서 기름을 들이부어 불을 낸다는 오해도 있었지만 실제 불을 퍼뜨리고 키우는 것에 활용되는 것은 흑색화약이다. 2019년에 사용된 화약의 총량만 2.65t에 달할 정도였다. 흑색 화약의 특성상 매연이 많이 발생하고 당연히 탄소 배출도 상당하다. 3월은 미세먼지가 극심해지는 시기인 데다 최근 기후위기로 탄소중립을 외치는 마당에 다량의 미세먼지와 탄소를 배출하는 축제를 구태여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마지막으로 불편한 이유는 목축을 위해 초지를 태우는 것도 아닌 상황에 불을 부르고 액운을 떨치는 일에 수많은 생명들이 마치 재물처럼 바치는 축제가 과연 합당한 일인가 하는 점이다. 게다가 현재 세별오름은 훼손이 극심해 보호가 절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화약을 오름에 심어 터트리는 것이 옳은가. 특히나 가장 건조한 시기 산불조심을 외치는 행정당국이 구태여 불을 놓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의문이 든다. 이런 불합리가 넘쳐나는데도 구태여 축제를 해야 한다면 그것은 오로지 축제를 위한 축제라는 비판과 냉소를 살 뿐이다. 당장 축제를 멈출 수는 없을지 몰라도 적어도 내년부터는 시대와 환경에 맞는 축제로 변화하길 바란다.

사설

세계농아인대회 손 놓고 있을건가

제19회 세계농아인대회가 오는 7월 제주에서 개최된다.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한국에서는 처음 개최된다. 전 세계 130개국 회원국에서 5000명이 참여하는 대회는 이 대회에서는 농아인의 인권과 교육, 문화, 수어 등을 공유하게 된다. 제주도는 지난 2019년 세계농아인대회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최종 개최지로 선정되자 제주도는 개최 비용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하는 유치약정서까지 제출했다. 이후 행사 준비와 홍보 등 후속 조치들이 미흡해 유치만 해놓고 손 놓고 있다는 비판이 제주도의회에서 대두됐다. 대회는 우수 장애인정책 홍보 등 제주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또 참가자들의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파급 등 긍정적 효과도 유발할 수 있

다. 하지만 도민 대다수가 제주 개최 사실조차 모를 정도로 행사 준비와 홍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예산 지원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대회 지원으로 확보된 예산은 9억9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6억5000만원은 예산심사시 도의회가 증액한 것이다. 제주도가 개최비용 지원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자체를 소홀히 한 것이다. 제주도는 오는 4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세계장애인대회 준비 과정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부산시는 단순 후원이 아닌 주관으로서 행사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세계농아인대회 제주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또 전 세계 농아인을 위한 축제인 만큼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래픽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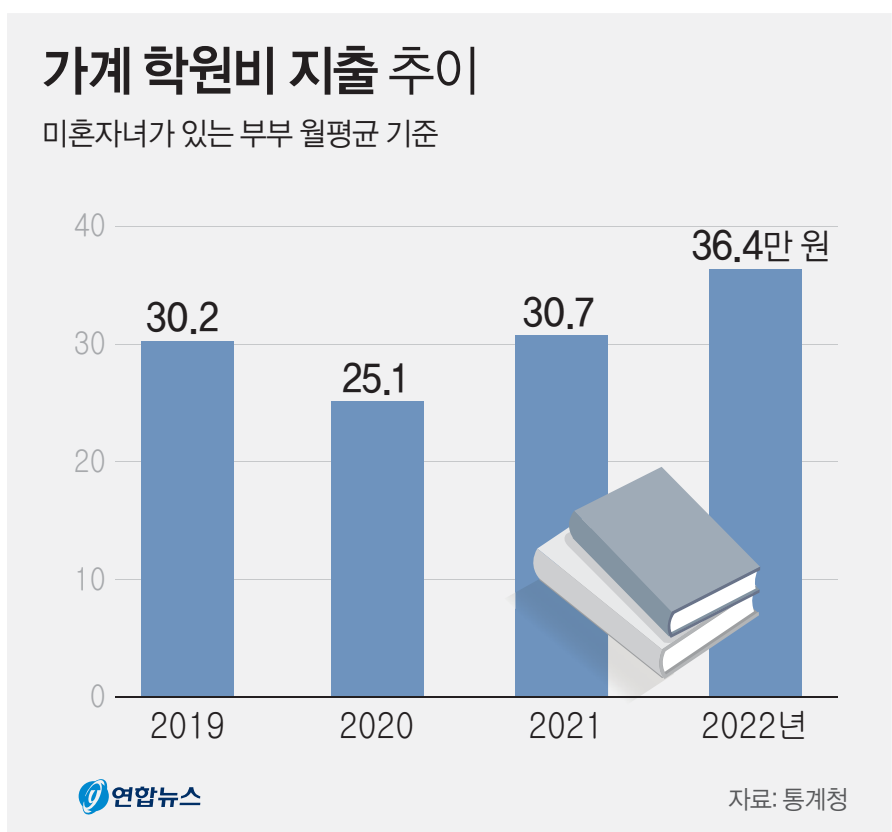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Hanri Ilbo, including phone numbers, email, and address.

열린마당

우리 가족의 안전, 119 안심콜로 지키세요



한대호 제주소방서 이도119센터

인구 고령화 시대인 요즘 핵가족화로 자식들과 떨어져 홀로 사는 노인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노인들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119에서는 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이 바로 '119 안심콜 서비스'이다. 119 안심콜 서비스는 질병자, 고령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환자들이 응급상황으로 119로 신고할 경우 사전 등록된 환자 정보(과거질환, 현재질환, 복용약물 등)를

통해 맞춤형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신속한 병원 이송을 통해 골든타임 확보에 큰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다. 또한 사전 등록된 보호자에게 환자의 응급상황 발생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자동 전송해 떨어져 사는 보호자에게 환자의 응급상황을 알릴 수 있다. 119 안심콜 서비스는 119안전신고센터(www.119.go.kr)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남녀노소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본인이 가입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이 가입할 수 있다. 대리인이 없고 스스로 가입하기 어려울 경우 가까운 119안전센터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이처럼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이 기회에 떨어져 사는 부모님에게 안부 전화 한 통과 함께 119 안심콜 서비스에 가입해드리는 것은 어떨까?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2공항 건설 여부 도정의지 보여줘야

오영훈 도정이 제주 제2공항 문제와 관련 국토교통부 등과의 확보에 큰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다. 또한 사전 등록된 보호자에게 환자의 응급상황 발생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자동 전송해 떨어져 사는 보호자에게 환자의 응급상황을 알릴 수 있다. 119 안심콜 서비스는 119안전신고센터(www.119.go.kr)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남녀노소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본인이 가입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이 가입할 수 있다. 대리인이 없고 스스로 가입하기 어려울 경우 가까운 119안전센터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이처럼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이 기회에 떨어져 사는 부모님에게 안부 전화 한 통과 함께 119 안심콜 서비스에 가입해드리는 것은 어떨까?

중점 평가 사업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했으나 부적절하다는 환경부의 통보로 무산됐다. 제2공항 전략 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연구용역 도민사회 검증 후 제2공항 추진 여부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 역시 물거품이 됐다. 오 지사가 요청했던 원희룡 국토부장관과의 면담도 여태껏 이뤄지지 않았다. 오 지사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국토부의 일방 통행식이라는 해명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간 도정의 문제 해결의지는 눈에 띄지 않았다. 결국 제2공항 추진여부가 판가를 나기 직전까지도 '제주미래는 도민들이 결정해야 한다'는 오 지사의 공약은 공약(空約)이 되게 됐다. 제2공항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발표를 통해 다시 한 번 도정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그제 찬성이든 반대이든 간에.

차고지/주차장 市の 자기차고지갯기사업 *市 지원 90%* 2023년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 중 *자기차고지갯기사업* No.1시공업체 편리한생활건축설비 010-9908-9200

백도라지 분말 관상과 사랑 주선에 이룬 성과 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물 미국식품의약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에내 가능합니다."

토지임대 제주시 월성로4길 76-2 (해태동산/공방방면 우측) 대지 4,123㎡(1,247평) 건물 2동 / 2층 근린생활시설 현재 렌터카 차고지 임대료 상담후 결정 744-2002, 010-2113-2112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열린 기술 습득 기술인력 개발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 점: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

강정동 카페 및 펜션 토지 매각 1 강정 해안도로 점 607평 (카페 A급 토지) 2 강정동 주택지 373평 3 강정 해안도로 뒤 370평 (건축 높이 17m가능) 4 서귀포 이마트 근접 180평 (비다조망 건축가능) 5 월평포구 도로 근접 590평 (상가 및 펜션 건축가능) 6 호근동 일주도로 위 범섬 조망 180평 (주택 건축가능) 7 고근산 뒤 5,000평 조정 식재 (별장 건축가능) ※ 부동산중개사 아님 010-7328-1107, 010-6275-5200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향운철학관 향운거사 이방택 사주, 관상 2가지 방법을 종합해서 운명을 감정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기운명이 현재, 미래에 어떠한 운명인가를 알아서 살아가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사회에 나가서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성공할 것인지 대학은 문과를 가야할 것인지 이공계열을 가야할 것인지 미래의 진로를 선택해야 할 중3, 고1, 2년생 환영합니다. 하루에 오전, 오후해서 2명만 전화 예약 받습니다. ☎복비: 50,000원 전화 010-7301-7737

택지, 상가 긴급매각 1) 성산포 500평 현재 70% 공사중 해안도로점 2) 송당리 1,000평 (분할 가능) 관리지역 (평당 750,000원) 관광농원 인근, 송당리 마을, 2차선 접합 3) 종달리 6,000평 (분할 가능) 관리지역 (평당 1,600,000원) 우도와 일출봉사이 바닷가 4) 시흥리 5,000평 (분할 가능) 잡종지, 일주도로 접합 5) 성산포 12,000평(분할 가능) 해안도로 접합 010-4820-4823 (부동산중개사 아님)